



## “농협 지켜라” 농민 2만 명 집결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농협 제공)

### 농협 자율성 침해 우려... 조합장·농민 2만여 명 여의도 집결 “개혁 아닌 개입”... 농업계, 농협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촉구

전국 농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 명이 21일 오후 1시 여의도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장과 농민들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지회사 지도·감독권 존치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 기구 신설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다섯가지 요구사항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

#### 조합장 96.1% 중앙회장 직선제 반대... 현장 외면한 일방적 규제에 강력 반발

이번 결의대회의 배경으로는 최근 실시된 전국 조합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 결과, 96.1%가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

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직접 감독권 확대(96.8%) ▲외부 감사 기구 설치(96.4%)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감독 권한 확대 등 농협 개혁방향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현장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결의대회는 일회성 행동이 아닌, 지역 농축협과 조합장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강력히 제기해 온 문제의 연장선이다. 조합장들은 성명을 통해 현장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며, 충분한 공론화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촉구했다.

#### 농협 단체 연대 성명... “농업인 이익 저하 우려, 끝까지 투쟁할 것”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에는 전국 주요 농업인 단체들도 참여해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농협 단체들은 “농협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통제는 결국 농업인 지원 사업의 축소와 농가 경영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농업계 전체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뜻을 함께할 것을 결의했다.

박경식 공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의 농민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국회 앞에 모인 것은 농협의 자율성 상실이 곧 농업의 위기로 직결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농협법 개정은 개혁이 아닌 개입”이라고 지적하며, “속도전식 입법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2만여 명의 결집은 농협 자율성 수호를 위한 현장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농민과 함께 설계된 개혁만이 농협을 살릴 수 있으며, 농협의 주인은 정부가 아닌 조합원”이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 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시작

### 4개 시·군에서 올해 20개 시·군 확대

농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0일부터 벼를 대상으로 한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로 인한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보험 가입 연도의 농업 수입이 과거 평균 대비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 그 감소분을 전액 보상하는 제도다.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이 수확량 감소만을 보장하는 것과 달리, 가격 하락까지 포함해 보장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벼 품목은 지난해 청주·상주·천안·영광 등 4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됐으며, 올해는 고성·철원·여주·이천·남해·창원·안동·영덕·강화·고흥·해남·김

제·남원·당진·서산·진천 등 16개 시군이 추가돼 총 20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봄베추와 봄무는 평창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봄감자·고구마·옥수수 등은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지역 농축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며, 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

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약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뿐 아니라 가격 변동 위험까지 함께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etimes.com



▲농식품부전경

비대위는 이날 현장에서 낭독한 결의문을 국회와 농민축산식품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강태영 기자  
ktya0712@daum.net

## 농진청, 과수화상병 예방 “개화기 적기 약제 방제” 당부

### 사과 주산지 집중 예찰·기술지원 강화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22일,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사과 과수원을 찾아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개화기 약제 방제 상황을 살피고, 영주시농업기술센터의 과수화상병 예방·방제 계획을 들은 후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북 영주는 지난 2021년 농가 1곳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지역이다. 이날 방문한 과수원은 ‘후지’, ‘감홍’, ‘이지플’ 품종 등 사과 나무 약 3,000주(1.4헥타르)를 재배하고 있다.

이 청장은 “과수화상병 예방은 예방 제거, 약제 방제 등의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특히 4-5월 개화기에는 균 활동이 활발해지며, 매개체로 꽃 감염이 확산하므로 반드시 예방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청장은 “지난해까지 감소 추세이던 과수화상병이 기존 발생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집단 발생하고 있다.”라며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과 인접 과수원, 전국 사과 주산지를 집중적으로 예찰하고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해 올해

신규 발생 지역이 나오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과수 재배 농업인은 약제 방제와 함께 예방 교육 이수, 농작업 도구 소독, 영농일지 작성, 작업자 출입 관리, 건전 묘목 사용 등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꽃 감염 위험도 정보는 과수화상병 예측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농촌진흥기관이 발송하는 알람 문자로 확인할 수 있다. ‘위험’ 또는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22일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사과 과수원을 찾아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개화기 약제 방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돈자조금**

**세계적 식재료  
가장 가까이에, 한돈**

“BBC선정 슈퍼푸드 돼지기름인데!  
한돈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장점이 많네요”

한돈 홍보대사 안성재

돼지고기 **투명한 한돈!** 유류 단체를 정보의 투명성, 관리 공개로 믿을 수 있는 돼지고기 업체

**한도물, 합리적인 한돈!** 한돈자조금이 인증한 최고 품질의 한돈을 부담없이 구매 가능한 소포장

**안전한 한돈!** HACCP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으로 보다 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

한돈몰 **돼지고기 구입은 한돈몰** ☎ 1670-1045 (한돈서포)